

양양소식

2023. 9

Vol. 340

CONTENTS

04 기획특집

양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선정

08 함께 가는 길

오색1리
오색영농조합법인

12 Story in 양양

미리 걷는 수산~동호 간
해안생태 탐방로

쉼

청본 김정희

밀쳐냈던 이불을 끌어당기게 되는 가을 문입니다.

쉼~!

여름 비밀은 그냥 두고 오세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말리며

살포시 여름을 밀어내고 있네요.

송이구름 한 점 내려 받아

도화지 잔에 진한커피 한 방울 톡 터트려

따뜻한 말 적어서 너에게 건네고 싶어요.

어떤 날은 설익은 농담으로

어떤 날은 무르익은 술맛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가을창문 밖의

흔들리는 억새바람 되어 걸어두라고.



김정희

프로필

한국문학정신 시 등단

양양문인협회 5대지부장(전)

제52회 한민족통일문예제전입상

강원문인협회, 양양문인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CONTENTS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양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선정
- 8 함께 가는 길_ 오색1리 오색영농조합법인
- 12 Story in 양양_ 미리 걷는 수산~동호 간 해안생태 탐방로
- 15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제235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 18 향토사 이야기_ 양양남대천의 입, 한개목을 아시나요?
-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25 정보꾸러미_ 일자리정보
- 28 공익광고_ 2023 양양 송이&연어축제

COVER DESIGN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40호

- | 발행일 2023년 9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 | www.yangyang.go.kr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지역개발사업 최종선정 양양 도시개발사업 탄력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해북부선철도 건설사업에 발맞춰 양양역 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양양역을 중심으로 한 '양양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본격적인 추진력을 얻은 것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양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인구·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것으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양양군은 지난 6월 공모사업으로 '양양 도시개발사업(역세권 : 동해북부선)'을 신청해 서류심사, 현장 실사 방문 및 발표, 최종 발표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양양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동해북부선의 건설로 조성되는 철도역을 지역 활성화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송암리 29-20번지 일원 571,604㎡의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을 크게 견인할 예정이다.



양양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조감도



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조감도



양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1단계) 조감도



양양군 위케이션센터 (Wave Works yangyang)

역세권 개발,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개발이 정체됐던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와 생활 SOC 부족으로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동해북부선 철도건설과 연계한 역세권 조성을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군은 국비 최대 100억 원을 확보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민간 합동으로 총 1,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양읍 송암리 일원에 복합환승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와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또한 양양 역세권 개발 시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이 지원돼 다양한 분야의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청년과 주민 고용이 대폭 확대돼 인구 증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도로와 시장 등 기반시설 정비, 교통환경 및 환승체계 개선, 연어양식장 및 연어 클러스터 등 인접 지역사업과의 연계성을 통한 체계적 개발, 지역특화산업 등을 확보한 복합단지 조성,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역발전 발판, 양양의 미래 성장 탄력

양양군은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을 크게 4개의 축으로 설정했다. 양양 역사가 들어서는 중심부를 환승 통 거점으로 해서 인접 원도심과 2단계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역사문화축, 동두산~뱀재산~송이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녹지축, 양양종합운동장~남대천을 연결하는 수변체육관광축으로 나눠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동해북부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 플랫폼 구축, 지역자원 활용 및 기능 융복합을 위한 관광·레저와 특화 산업 활성화, 원도심 상생 및 관광 명소화를 위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정주 공간 조성, 양양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공공 행정 서비스 강화가 핵심전략으로 추진된다.

원도심의 도시발전과 양양역과 연계한 주거, 상업, 공공업무, 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주변 도심 재생과 연계한 도시환경 정비로 원도심은 활력을 되찾고, 역세권은 양양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나갈 구심점이 될 것이다.

양양은 지금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 있다. 양양군의 최대 개발사업으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양양의 미래를 꿈꾸게 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군민과 양양을 찾는 관광객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역세권, 더불어 누구나 살고 싶은 양양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색1리 오색영농조합법인

다섯 마을이 모인 오색영농조합법인
입소문 타고 알려진 휴랜드 캠핑장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는 최단코스의 출발점인 오색리는 관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마을이자 설악산의 절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전국 팔도에 이름을 알린 오색 약수의 유명세에 관광 거점이 된 건 오색2리, 반면 오색령 초입에 자리한 오색1리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장군바위, 백암폭포 등이 있어 구경삼아 오가는 이들은 있었지만, 머물다 가는 이는 없었던 오색1리에 사람들이 집을 싸 들고 찾아오기 시작한 게 올해로 3년째.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도시민들에게 입소문 나게 된 이유, 오색영농조합법인의 비밀을 살펴보자.



다섯 개의 마을이 하나가 된

오색영농조합법인

사방이 높은 산봉우리에 둘러싸인 오색리에 접어들면 신비로운 기운이 감돈다.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고, 봄이면 흐드러진 산벚꽃의 황홀경,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은 자연이 선물한 마을의 자원이다. 마산, 굴아우, 관대문, 백암, 가라피라는 이름으로 다섯 개의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이곳에 형성되었는데, 행정수복 후 오색리가 되었다. 가라목이 많아 수공업이 발달했었다는 가라피, 하얀 흙이 많아 백자 가마터가 있었다는 백암, 화전민과 외진 곳에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켜 형성됐다는 관대문과 굴아우, 그리고 오색초등학교가 있는 박달마을은 최근에도 마산이라고 부른다. 오랜 역사를 가진 다섯 개의 마을 주민들은 뜻을 모아 2014년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시작하면서 오색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였다.

주민 대부분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왔으나 농사일만 하던 터라 마을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마을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산채와 고로쇠를 함께 작업하는 작목반을 운영하고, 허브농원 농촌체험교육농장, 전통장 사업 등에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마을 자원을 활용해 나갔다. 또 고려시대부터 도자기를 많이 구웠던 가마터가 있었다는 추정을 바탕으로 마을회관 옆에 설악오색가마터를 열어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설악오색가마터에서는 지금도 주민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를 전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강원도로부터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로 선정되면서 성과를 내왔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주민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탓에 사업을 추진할 인력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마을사업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양양오색 휴랜드 캠핑장

새로운 마을 소득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고스란히 마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비와 군비를 지원받은 사업비에서 부족한 예산은 주민들이 구성한 오색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모아 오랫동안 비어있어 황무지와 다름없던 논을 사고, 도로를 만들고, 땅을 조성해서 2020년 오색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휴랜드 캠핑장의 문을 열었다.

오색령 초입에 자리 잡아 나무와 숲에 둘러싸인 캠핑장은 자연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선물한다. 넓은 캠핑장은 나무 그늘이 많아 시원하고, 바로 앞으로는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한 오색천이 흘러 물놀이가 가능하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트램펄린과 점봉산 골짜기의 계곡물을 사용하는 간이 수영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와 맞닿아 캠핑 수요가 늘어나면서 휴랜드 캠핑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여유, 최신 시설이라 편리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다녀온 사람들이 꼽은 캠핑장의 장점이다. 고향에 돌아와 사무장으로 7년 동안 일하다 올해부터 오색리의 마을사업을 주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진선길 이장에게 세심한 캠핑장 관리의 비결을 물어봤다.

“우리 마을에서 하는 캠핑장이니까 마을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마을 주민들이 오가면서 매일매일 쓸고 닦고, 화장실 거울에 물방울 하나도 없게 하려고 세심하게 노력합니다. 또 정기적으로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처음처럼 변함없이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양양오색 휴랜드 캠핑장

양양군 서면 관대문길 99 ☎033-672-9189

마을사업을 하자고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나니 수시로 캠핑장을 드나드는 게 주민들의 주요 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아침이면 하나, 둘 모여서 산책로를 따라 운동도 함께 하고, 커피도 한 잔 나누면서 마을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생겼다. 관리동 사무실은 자연스레 마을 사랑방이 되어 언제나 주민들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 주민들의 밭에서 자란 제철 농산물도 조금씩 갖다 놓으면 캠핑장에 온 손님들이 사 가기도 하고, 캠핑장이 마음에 들어 자주 오는 손님들은 캠핑장에 할 일이 생기면 스스로 캠핑장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식구처럼 지낸다. 주민들끼리의 관계도 돈독해졌지만, 놀러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생각에 멀게만 느껴졌던 도시민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인정을 느끼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민들은 자부심도 생겨났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이 더 즐겁게 지내다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오색영농조합 법인의 사업 구상으로 이어졌다. 오색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토종메기를 구경할 수 있다면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올해 처음으로 토종메기 치어 3만 마리를 방류했다. 해마다 치어를 방류해서 오색리 마을 계곡마다 토종메기가 넘쳐나는 상상을 하면 몸은 힘들어도 일하는 재미가 있다.

“마을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위기감도 좀 들지만, 캠핑장을 운영하는 재미가 있어요. 외지에서 우리 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쉬다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마을의 잠재된 가능성에 다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군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사진 : 편집부〉



숲과 바다, 풍경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11월 중 개방 예정



미리 걷는 수산~동호 간 해안생태 탐방로

걷기 좋은 날이다. 걷기의 매력은 무엇일까? 두 발로 길의 실체를 분명히 느끼고, 그 길이 불러 모은 풍경들을 눈에 담다 보면 어느새 마음 안에는 새로운 감성들이 싹 틔운다. 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도 길 위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위대한 결과물을 얻어내지 않았던가. 그래서 앞으로 마주할 길들이 나에게 가져다줄 선물이 기대되기도 한다.

이번 가을에는 수산항에서 동호리 입구까지 아름다운 해안생태 탐방로를 걸어보면 좋겠다. 숲과 바다가 전에 보지 못한 풍경들을 열어주는 그 길을 걷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봉인되었던 길이 열리는 순간

길은 '초대장'과도 같다.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구구절절한 이야기 속으로, 또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손양면 오산리부터 수산항을 거쳐 동호리 해안까지 이르는 4.93km 구간은 말 그대로 '봉인된' 초대장이었다.

빼어난 해안 절경을 품고 있음에도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관광자원화 하지 못한 숨은 명소, 그 구간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양양군은 지난 2020년부터 제2구간인 수산~동호 간 해안생태 탐방로 조성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해 9월에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완료함으로써 수산항요트마리나~동호리 구간 생태탐방로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으며, 군부대 철책 이설구간(500m)에 대한 이설 작업을 마무리 하는 등 사업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순항 중이다.

원래는 양양군이 수산항요트마리나에서 시작해 동호리 입구까지 이르는 1.5km의 생태탐방로 조성을 계획했으나, 사업 구간 내 사유지의 경우에는 민간개발업체가 2025년까지 0.7km의 탐방로를 직접 설치하기로 해서 그 구간만큼은 직접 추진사업에서 제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에 수산항 봉수대를 추가해 데크와 안내판을 정비하는 등 새롭게 단장한 전망대를 선보이기로 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전경

올해 10월까지 수산항요트마리나~동호리 구간에 데크로드(0.8km)와 쉼터, 전망대 등이 설치되면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생태탐방로가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번 해안생태 탐방로는 수산항에서 시작한다. 수산항은 요트마리나로 유명한 국가항으로, 어느 항구에서 보기 어려운 이국적인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돛을 접고 정박한 요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먼 바다로 나가는 짜릿한 상상을 하게 된다.

바다가 배웅하고, 바다가 마중 나오는 길

수산항 주차장에 도착하면 탐방로 입구가 보이는데, 초반은 다소 가파른 길이라 올라가는 데 숨이 가쁘다. 그래도 힘들게 그 구간을 통과하면 눈앞에 울울창창한 숲길이 이어진다. 하늘을 가릴 만큼 높이 솟아오른 나무들은 하나같이 잎이 무성해 그 사이로 통과한 햇살이 발아래 보석처럼 박혀있는 걸 보게 된다. 자연은 가끔 그런 영롱한 자세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감탄하기에는 이르다. 왼편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은 이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 준다. 수산항 방파제 너머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 전망이야말로 해안생태 탐방로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여러 형태의 기암괴석들이 풍경에 다채로움을 더해 준다.



기암괴석

1km에 가까운 거리를 걷다 보면 쉬이 지칠 수 있지만, 생태탐방로에는 쉼터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온병이나 텀블러에 차나 커피를 담아 와서 쉼터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겨도 좋고, 전망대에서 길에서 미쳐 다 느끼지 못한 탁 트인 바다 전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묵직했던 다리의 피로도 금세 사르르 녹는다.

민간개발업체의 탐방로 설치가 완료되는 2025년 이전까지, 수산항요트마리나~동호리 구간 중 우리의 걸음이 허락된 곳은 바로 전망대까지다. 남은 구간도 완벽하게 열리고 나면, 해안생태 탐방로는 동호리가 시작되는 작은 바닷가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품이 넉넉한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다면, 동호리에서는 고요하고 호젓한 바다가 우리를 마중할 것이다.



걸어 걸어가다 보면 만나는 또 다른 길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수산항요트마리나~동호리 구간 해안생태 탐방로는 수산항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해파랑길 43코스, 북쪽으로 해파랑길 44코스와 닿아있다. 해파랑길 43코스는 하조대해변·여운포교·동호해변·수산항 입구를 통과하는 코스로, 서핑을 비롯해 요트·카누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 해파랑길 44코스는 수산항 입구·낙산해변·낙산사 입구·설악해변·속초 해맞이공원을 통과하는 코스로, 양양의 유구한 역사가 서려 있는 구간이다.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기 마련이니 해안생태 탐방로를 방문하면, 또 다른 매력을 가진 길들을 만나게 된다. 양양의 대표명소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함께 둘러봐도 좋다.

같은 길이라도 이왕이면 경관이 멋진 길을 찾게 된다.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하는 일만이 길의 역할은 아니니까. 그 위에서 풍경과 주고받는 감정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로하고, 성장하게 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양양에 새롭게 탄생할 새로운 길을 마음을 열어 환영하고 싶다.

〈글·사진 : 편집부〉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숲에서 만나요, 포레스트 강원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2023

Gangwon Forestry Exhibition

2023. 9. 22. ~ 10. 22.

강원 세계잼버리수련장 및 고성 속초 인제 양양 부행사장



주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주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산림청 산림조합 한국수력원자력주 NH농협은행 강원영남본부
EIR COSMETIC WESTWOOD 그레이아일랜드 *이비엔지 *김영철영양연구소
CAK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협찬

DOUZONE 강원도청 강원도농업기술원 평창한우마을 한국관광진흥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Gangwon Forestry Exhibition 2023



의

정

소

식

제235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7월 12일 양양군 설해원에서 제235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제234차 월례회 개최결과 보고 및 차기 월례회 개최지 공지, 2023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포함 3건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외국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외국인선원제 비자를 일원화하여 외국인 선원 고용을 안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 업무와 외국인 선원 이탈을 줄이기 위한 선원법 및 고용노동법 등 입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통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22일



까지 31일간 열리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개최를 앞두고 범국민적 관심 증대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의회적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였다.

오세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시·군의회의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객 유치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의장님들의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를 전하였다.

양양군의회, 충북 청주시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 봉사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13명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강내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가 폭우로 잠긴 시설물 토사 제거와 기계설비 세척 등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강내면 행정복지 센터에 50만원 상당의 위문품(컵라면)과 함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양양군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국적으로 받은 많은 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청주 시민들이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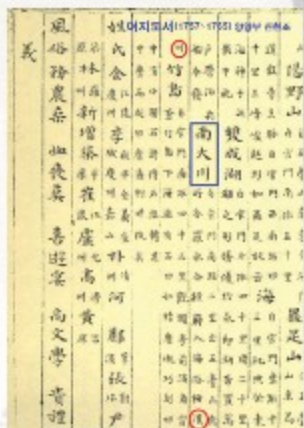
양양남대천의 입, 한개목을 아시나요?

양양10경 중 제1경인 양양남대천(이하 남대천이라 부름)은 본천(本川)과 후천(後川)의 두 줄기로 이루어졌다. 본천은 오대산 두로봉(해발 1,422m)에서 발원하여 강릉 부연동과 양양 법수치리와 어성전리를 지나면서 면옥치천 및 어성전천을 품는다. 후천은 구룡령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점봉산과 오색령에서 시작된 오색천과 합쳐져 내려오다가 장승천과 거마천을 만난다. 본천과 후천은 율리와 북평리 일대에서 합수하여 양양 읍내를 관통, 동해에 닿는다. 남대천은 본천(54km)과 후천(34.2km) 그리고 지류하천들을 합칠경우 물길의 길이가 140km에 달하는데 가뭄이 심할 때에도 양양의 젖줄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고 있다.



〈남대천 전경〉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 가장 길다. 그래서인지 고문서에 남대천의 별칭으로 한천(漢川)이 보인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남대천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소동라령(현 북암령)의 물과 합쳐져 바다로 들어가는데 속칭 한천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크다'는 의미의 옛 우리말인 '훈'이 한자표기 한(漢)으로 바뀌어 강 이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서해로 흘러드는 큰 강을 한강이라고 부르듯 동해로 흐르는 큰 내를 한천이라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어찌 되었든, 남대천은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가 있던 곳 남쪽에 자리 잡아 흐르는 커다란 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지도서에 표기된 한천〉

설악산~오대산 구간의 백두대간이 남대천의 발원지라면 남대천이 동해와 접하는 조산리~가평리 일대가 남대천 하구이다. 하구는 강의 입인데 강물과 바닷물이 들고난다.

남대천하구에는 모래톱이 있는데 밀물이 높이 들어오거나 동풍으로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하구의 물흐름이 점점 느려져 모래가 쌓여 막히고, 강물이 불어나고 조수(潮水)가 낮아지면 막혔던 모래톱이 열린다.

남대천하구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 한계목, 항계목, 한개목 혹은 항개목이라고도 하는데 근거 있는 이름을 밝혀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한개목 전경〉

조선시대 1490년~1605년 사이에는 조산리에서 기정리 동쪽에 이르는 사천리 인근에 해군 항만이 있었다. 성종 때 동해안 방어를 위해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양양부 조산리에 설치하고 대포영(大浦營)이라 불렀는데 영의 위치는 동명서원 부근이다. 남대천과 인접한 이 일대에 배가 드나들었음은 배둔지(船屯池)라는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배둔지는 지금은 논이지만 당시에는 대포영의 병선(兵船)을 매던 곳으로 도평(島坪) 가운데인 포월천 근처이다. 대포영은 1605년 을사포락 이후 점차 매몰되어 사라졌다.

남대천하구는 대포영의 길목이었을 터이니 하구의 이름을 대포(大浦)와 연관 지어 유추해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옛 우리말 ‘훈’에 해당하는 것이 대(大)이고, ‘개’란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즉, 포(浦)나 석호(潟湖)를 일컫는 말이니 ‘대포’가 곧 ‘한개’인 것이다. 두 물체 사이를 잇는 잘록한 부분을 ‘목’이라 하는데 하구가 바로 ‘목’이다. 이렇게 보면 남대천하구의 올바른 지명은 ‘한개목’이다. 자음접변 현상으로 한개목은 항개목으로 소리가 나는데 그대로 적은 것이 ‘항개목’이다. 한계목은 한계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남대천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기 어렵다.



〈대포영과 한개목〉

한개목의 개 막힘 현상은 1년에 3~5회 정도 발생하는데 역류한 바닷물로 남대천하구는 바닷물과 민물의 중간쯤 되는 염분농도를 지닌다. ‘강’이라고 하면 흘러가버린다는 소실적(消失的) 이미지가 강하지만 황어 은어 연어와 같은 회귀어종이 돌아오는 남대천은 좀 다르다.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떠나는 새끼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 주는 곳이자 고향을 찾아오는 다 큰 자식들이 자기를 잉태했던 모천에 적응하는 곳, 한개목이 있기 때문이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전국 군 단위 최초
스마트관광도시 출범,
25일 선포식**

**전국 군 단위 최초
스마트관광도시 출범, 25일 선포식**

전국 군 단위 최초 스마트관광도시 출범

양양군이 전국 군(郡) 단위 최초로 스마트관광도시 구축을 완료하고, 8월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고고양양’은 양양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양양군 관광 통합 앱이다. 양양 전역 900여개의 관광지와 주차, 편의시설까지 양양관광 관련 정보가 한데 모였다. 현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길 안내 서비스와 택시 호출서비스도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서핑숍과 체험, 숙박, 맛집, 카페에 대한 사전예약과 현장구매도 가능하다. 영어·중국어(간체) 서비스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양양군 국비 100억원 확보
지역개발사업 공모선정**

양양군, 국비 100억원 확보, 2023년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 부문) 공모 선정

양양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2023년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 부문에 양양역을 중심으로 한 ‘양양 도시개발사업(역세권 : 동해북부선)’이 최종 선정되었다.

‘양양 도시개발사업(역세권 : 동해북부선)’은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의 개통에 이어 동해북부선의 건설로 조성되는 철도역을 지역활성화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여 양양역과 연계한 주거, 상업, 공공업무, 문화 등의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주변 도심재생과 연계한 도시환경 정비로 원도심의 활력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양양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양양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양양군이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양양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2023년 양양 송이·연어축제 10월 통합개최 확정!

2023년 양양 송이·연어축제 10월 통합개최 확정!

- '송이&연어 문화를 만나다' 라는 슬로건으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 -

국내 대표 가을축제인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송이&연어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최초로 통합되어 개최된다. 양양군은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양양군 남대천 둔치, 다목적광장, 전통시장, 풍당풍당 물놀이장을 배경으로, 통합된 양양 송이·연어축제를 선보인다.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는 1997년 개최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문화관광축제(송이축제)와 강원도 우수축제(연어축제)로 지정되었고, 강원 영동의 지역적 특성과 자연환경에 최적화된 가을 대표축제로서 이름을 알려왔다. 양양문화재단은 송이·연어축제 시 남대천변 주변에 최초로 공간 디자인 개념을 접목할 예정이며, 이전과는 달리 축제 시간대도 확장하여 오후 10시까지 야행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2023 양양 송이 & 연어축제

웰빙 송이! 힐링 연어!

양양의 자랑 송이버섯,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함께 가득한 볼거리와 산, 바다,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 도시 양양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양양군 대표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내용

연어맨손잡기 체험 외 약 50여 개 단위 행사

제형	송이보물찾기, 연어맨손잡기, 연어타분뜨기, 연어열차, 수산물 바다체험, 생태체험, 연어알 잡기, ox퀴즈, 어린이 놀이터, 남대천 요가, 한방체험 등
문화	개막식, 폐막식, 탁자사 대회, 지역문화공연, 버스킹, 뽕아리 참여공연, 불꽃놀이, 청소년 참여공연
먹거리	버섯음식 전문점, 연어음식 전문점, 송이탕, 연어탕, 전통시장 막걸리주막, 전통주 무료시음, 해드미 밥, 힙과, 어묵, 연어 버터구이, 서핑보드형, 연어초밥, 머령구이, 연어스테이크, 연어알이, 연어완자, 연어강정, 연어장, 시식행사 등
상설	송이주제관, 연어주제관, 양양송이 직거래장터, 낙산버들명회, 분재전시, 송이가공식을 전시판매, 사진전시, 농·특산물판매, 송이전시 만들기, 송이만화찍기, 송이들이 만들기, 스탬프투어, 캘리그래피 체험, 꽃누르미 체험, 청소년 체험부스, 열기구 체험 등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양양교육도서관
Tel : 033-672-2679 FAX : 033-672-2689
<https://lib.gwe.go.kr/yylib>



아빠를 찾아요

저자 : 장수경 지음

발행처 : 프인돌어린이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아 813.8-장560 / 자료위치 : [양양]아동열람실
'셰퍼드 나라'에 살고 있는 복슬복슬 털을 가진 길리.
길리는 아빠와 단둘이 아빠의 고향인 '달마시안 나라'로 여행을 왔다가 아빠를 잃어버리고 만다.

길리의 아빠 찾기를 도와주려는 친구들은 길리와 비슷한 외모를 찾으려고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달마시안 친구들의 모습을 더 닮은듯 한데... 여러 단서를 모아 이미지를 그려내는 몽타주처럼 친구들의 질문에 길리의 답으로 하나씩 완성되는 아빠의 모습.
과연 길리는 무사히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

어
린
이



5천 년 역사가 단숨에 이해되는 최소한의 한국사

최태성 지음

최소한의 한국사

저자 : 최태성 지음

발행처 : 프런티페이지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911-최883*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첫 번째 교양으로 손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떤 격동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알게 되면 현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사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사 입문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 없이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엄선해 한 권에 담아냈다.

청
소
년



아는 만큼 보인다: 한 권으로 읽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 : 유홍준 지음

발행처 : 창비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981.102-유950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우리 국토의 명작과 명소를 명문으로 전해온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 30주년 기념판이다.

500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국내 최장수 베스트셀러 '답사기' 시리즈에서 한국미의 정수이자 K-컬처의 원류를 보여주는 하이라이트 14편을 가려 뽑아 한 권에 담았다. 기존 답사기의 원문을 그대로 실지 않고 현황에 맞게 사실과 정보를 다듬었으며,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자어와 미술사 용어를 되도록 쉽게 풀었다.

일
반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잠



닌자터틀_뮤턴트대소동



1947 보스톤



영당이 탐정
미스터리가現身



천박사 퇴마 연구소



작은영화관 9월 기획전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노인 무료 안(眼) 검진 안내

노인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무료 안검진을 해드립니다.

- 검진일시 : 2023. 9. 7.(목) 09:00~15:00
(점수마감 14:30)
- 검진장소 : 양양군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
- 검진대상 : 만60세이상(신분증 필수)
- 검진인원 : 180명(선착순)
- 검진팀 : 한국실명예방재단
- 검진내용 : 문진,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상담 및 돋보기배부 등
- 문의사항 :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33-670-1723)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치매약제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로 주민등록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군민
 - 보훈대상자의료지원대상자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문의사항 : 양양군 보건소 치매관리팀 (☎033-670-2854)

2023 양양군 양성평등대회 개최

- 행사명 : 2023 양양군 양성평등대회
- 일시 : 2023. 9. 12.(화) 14:00
- 장소 :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
- 행사내용 : 개회식, 시상 등
- 주관 :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
- 문의사항 :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 (☎033-673-1916),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 (☎033-670-2967, 2966)

2023 취·창업페스티벌 “양양 잡(job)화점” 개최

- 행사명 : 양양 잡(job)화점
- 일시 : 2023. 9. 23.(토) 10:00 ~ 18:00
- 장소 : 양양송이공원
- 내용 : 취·창업 상담 및 퍼스널 컬러 체험
먹거리, 수공예품 등 플리마켓 운영
기린뮤직 꿈꾸는 음악회
및 양양군 학습서핑동아리 체험
- 참여팀 : 새일센터 (예비)창업자
및 독방마켓 셀러 등 35개팀
- 품목 : 과일 및 농산물, 누룽지, 어묵, 구운과자,
샌드, 양말목, 뜨개용품, 다육식물 등
- 문의사항 :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3-670-2890~3)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 2024학년도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제31기 신입생 모집

- 모집전공 : 농업-25명, 임업-25명, 축산(양봉)-20명
- 지원자격 : 강원도 소재 농업·임업·축산(양봉)관련 종사자, 귀농·귀촌예정자, 원장 추천자
- 교육일정 : 2024년 3월 ~ 2025년 2월
(매주 화요일 11시~17시, 동하절기 방학)
- 교육비용 : 60만원
-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반명함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해당자) 1통
- 접수기간 : 2023. 9. 1.(금) ~ 12. 15.(금)
- 문의사항 : 행정실 (☎033-250-7187~8),
홈페이지 nongsakangwon.ac.kr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명	경리사무원	09:00 ~ 18:00	월228만원 이상
설해원	8명	프린트, 식음팀	1일 8시간 스케줄 근무	월 245만원 이상(협약)
	10명	룸메이드 하우스맨, 하우스키퍼	1일 8시간 스케줄 근무	협약
	3명	조리사	1일 8시간 스케줄 근무	협약
(주)소노인터내셔널 (쫄비치양양)	1명	기계시설 유지보수원	교대근무	연2,800만원 이상(협약)
	3명	조리사	07:00 ~ 16:00 (주5일)	1일 13~15만원
(주)매홍엘앤에프	2명	식품 생산직	06:00 ~ 15:00 13:00 ~ 22:00	월 201만원 이상
	5명	제품 포장원	09:00 ~ 18:00 (주5일)	월 201만원 이상
주식회사 윤진 (홈마트)	1명	배송 및 매장관리원	08:30 ~ 18:00 (주6일)	월 300만원
효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3명	재가요양보호사	1일 3시간 (주5일)	시급 12,500원
온누리 재가노인복지센터	1명	재가요양보호사	오전4시간 (주6일)	시급 12,100원
(주)서진산업개발	5명	토목시공기술자 (강릉~제진 터널현장)	08:00 ~ 17:00 (주5일)	연4,000만원 이상(협약)
행복관리주식회사 (오션스테이)	1명	시설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	격일근무	월 302만원
미래안전광고	1명	업무보조원	09:00 ~ 18:00 (주5일)	월 201만원
공립 이슬어린이집	1명	보육교사	09:00 ~ 18:00 (주5일)	월 209만원 이상(협약)
디모테오어린이집	1명	연장반 보육교사	14:30 ~ 19:00 (주5일)	월 104만원
푸름희 강현어린이집	1명	담임교사 보조	10:00 ~ 14:30	월 104만원
(주)은진 (브리드호텔)	2명	룸메이드	08:30 ~ 17:30 (주5일)	월 240만원
서일개발(주) (양양e편한아파트)	1명	시설기사	격일근무	월 307만원
양양수산	20명	식품생산직	08:00 ~ 17:00 (주5일)	시급 9,620원
	1명	생산관리직	08:00 ~ 17:00 (주5일)	월 300만원
농업회사법인 양양오색한과(주)	2명	한과생산직	09:00 ~ 18:00 (주5일)	시급 9,620원

2023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 (3차 - 야간반)

회차	월별	기간	접수기간	수강내용
3차	9월	8.28. ~ 9.21.	상시접수 (4개월 교육) (야간반) 월, 수, 목	(야간반) ● 한글 기초 (강의 및 실습 병행) ● 엑셀 기초 (강의 및 실습 병행) ● 컴퓨터활용능력 (강의 및 실습 병행) ● 스마트폰 활용 (기본 앱 활용)
	10월	10.2. ~ 10.26.		
	11월	10.30. ~ 11.23.		
	12월	11.27. ~ 12.21.		

- 교육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 (제1교실)
- 교육인원 : 인원마감시까지 상시접수 (단, 인원마감시에는 접수중단됨)
- 교육시간 : 야간반 18:30~20:30 (월, 수, 목)
- 신청방법 : 전화신청 ☎033-670-2116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양양군 학부모 강연회

입시가 아닌 성장을 말하다!



2023. 9. 20. 수 13:20~15:0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공연장

대상 관내 초·중·고 학부모 및 양양군민

주관 통합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후원  맥산그룹

통합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화 출범기념

양양 페스티벌

YY FESTIVAL

남·여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화 통합을 널리 알리고
양양중학교, 양양고등학교 재학생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문과 양양군민이 함께하여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마련한 음악 축제입니다!

공연일시

2023. 9. 16. (토) 18:30 ~ 21:20

식전 공연, 축하공연, 통합 선포 기념식, 나이트존, 불꽃쇼

공연장소 양양남대천 잔디광장 (웰컴센터 맞은편)

출연진 장윤정, 래퍼 래원, 박상민, 오드아이, 풍금,
DJ퍼포먼스팀 레트로, 모교 재학생 동아리



가수 장윤정



래퍼 래원



오드아이



가수 박상민

주최 통합 양양중·고등학교 총동문화

후원



맥산그룹

송이와 연어, 마켓과 손잡다!

2023 양양 송이 & 연어축제

2023. 10. 4.(수) ~ 10. 8.(일)

5일간

2023 양양 송이 & 연어축제

주요행사: 연어맨손잡기 체험 외 50여 개 단위 행사

장소: 남대천 둔치, 다목적광장, 전통시장,
인피니티 물놀이장,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양양문화재단
Yangyang Cultural Foundation